

허장 제2차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녹색기후기금(GCF) 공동 컨퍼런스 축사

- 한국-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녹색기후기금(GCF) 간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 제시 필요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21일(목) 11:00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녹색기후기금(GCF) 공동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녹색기후기금이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한 대사단 100여명 등이 참석하였다.

허장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기후 기술과 개발 경험,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사업 개발 역량,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이 결합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을 통해 녹색기후기금의 탄소 감축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면 탄소 감축과 개발 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주요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 (참고 1) 공동 컨퍼런스 개요, (참고 2) 공동 컨퍼런스 축사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도익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이수호 (suholee90@korea.kr) 통번역전문관 안여진 (yeojinahn0@korea.kr)

참고 1**공동 컨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 5.21일(목) 11시~16시 30분 / 서울 포시즌스 호텔

[① 1부]

시간	주요 내용
11:0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개회사(김상협 GGGI 사무총장 대면) ▶ 영상 개회사(마팔다 두아르테 GCF 사무총장)
11:10-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반기문 GGGI 의장) ▶ 축사(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11:22-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촬영
11:30-1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연설 (Asal Al-Tal 주한 요르단 대사, Andrew Bwezani Banda 주한 잠비아 대사)
11:4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GCF, GGGI)
12:00-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 의장·사무총장 공식 오찬

[② 2부]

시간	주요 내용
14:00-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부 개회(GGGI, GCF Director)
14:2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와 GGGI 신탁기금 소개
14:3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GGI 신탁기금 사업 사례
14:50-1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A
15:05-1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15:25-15: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 사업 절차
15:45-1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 인증기구 발표(KDB, KOICA)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표
16:15-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A

1. 국문

안녕하십니까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입니다.

GGGI-GCF 공동 컨퍼런스를 준비해주신
반기문 GGGI 의장님, 김상협 GGGI 사무총장님,
GCF 마팔다 두아르테 사무총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주한 대사 여러분들을 비롯한
여러 귀빈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을 통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이 남은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급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K-GX(한국형 녹색대전환)을 추진하고, GCF, GGGI 등 한국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국제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GGGI, GCF 간 협력을 강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의 기후 기술과 개발 경험, GGGI의 사업 개발 역량, GCF의 재원이 결합된다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UNFCCC, GGGI와 함께 추진 중인 GVCN,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GCF의 탄소 감축 실적을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탄소 감축과 개발 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GGGI-GCF 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GGGI-GCF 3자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귀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GGGI-GCF 공동 컨퍼런스가
한국-GGGI-GCF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영문

Good morning,
I'm 허장,
Vic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First of all, I appreciate Chair 반기문 of GGGI,
Director-General 김상협 of GGGI,
and Executive Director 마팔다 두아르테 of GCF
for organizing this GGGI-GCF joint conference.

It is also my pleasure
to meet the ambassadors to Korea
and all the guests joining us today.

The climate crisis is directly threatening our lives,
leading to natural disasters and inflation
caused by fluctuating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Moreover, there is a famous saying that goes
“this will be the coolest summer for the rest of our lives.”
Reflecting this grim reality,
many expect that the climate crisis will worsen day by day.

Therefore, urgent and unified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vital to protecting our future.

To boost our climate response, Korean government is advancing the Korea Green Transformation, K-GX and expanding our cooperation with Korea-bas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CF and GGGI.

Through these efforts, we aim to establish a positive cycle where climate response directly drives future growth.

I would like to ask GGGI and the GCF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so that this positive cycle can become an international model.

Korea's climate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experience, the project development capabilities of GGGI, and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GCF. By bringing these together, we can deliver truly tangible outcomes.

Specifically, we are working with the UNFCCC and GGGI to establish the 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 GVCM. What if we can monetize GCF's mitigation outcomes by converting them into GVCM carbon credits.

If Korea, GGGI and the GCF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in this way, we will be able to pres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new growth model that creates new growth engines through climate crisis response.

Distinguished guests,

For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GGGI, and the GCF to be successful, the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all distinguished guests will be essential.

I hope that today's GGGI-GCF Joint Conference will serve 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Korea, GGGI, and the GCF.

Thank you!